

편집장레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한지용 편집장

지난 3월 21일,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학 공연예술학과 MT 논란을 다룬 기사였죠. ‘무조건 참석(이하 ‘필참’)’을 강요했다는 것이 화두였습니다. 학보사 구성원과 논의 후 기자들과 함께 곧장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공연예술학과 학생회 대표와 조교님, 교수님을 취재해 진위 여부를 파악했죠. 확인 결과, 기사가 어느 정도 편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회의 소통 방식은 분명 문제였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학생회가 학우들의 필참을 요구했던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즉, 이 사건은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두 가지가 충돌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송현일 기자가 기자석을 통해 지적했던 대학을 단지 취업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쌓기보다 스펙 한 줄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분명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관계를 맺어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확장되면서 우리는 일평생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공동체 의식이 지닌 가치는 불멸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권리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권리, 둘 중 어느 가치를 더 중시해야 할까요?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라면 학생, 교직원, 교수 가릴 것 없이 모두 고민해봐야 할 시기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방향’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종종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곤 합니다. 선택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머리를 싸매며 고민에 빠지기도 하죠. 이는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인 우리 학교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6, 7면에서는 ‘주 69시간 근로제도 논란’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근로 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 시간을 늘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노동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권익은 곧 우리의 권익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 69시간 근로제도 논란에 대한 관심과 의견 표현은 필수가 아닐까요? 6, 7면을 확인해보시고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8면에서는 ChatGPT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궁금한내용 혹은 찾고 싶은 내용을 알려달라고 입력만 하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일일이 자료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과인 저로서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접할 때마다 놀랍지만 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현대인에게 이보다 적합한 검색 도구가 있을까요? 물론,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불확실한 정보와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ChatGPT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4면에는 국가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얼굴과 다름없었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과 태도가 국가대표답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드높았던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 역시 예전만 못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한국체육대학교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년간 베일에 싸여있던 메타버스 미래도서관의 모습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했던 학교의 단점을 상쇄했습니다. 도서관은 우리 학우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함으로써 더 발전된 사람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대면 개강 이후 단절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3년 만에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으며 복직하는 학우들을 보니 흐뭇한 웃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지금 학우 여러분은 어느 길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이번 4월호가 여러분의 길에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석 I



김수빈 기자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근거 없는 자기방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우리 대학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교를 갈망하는 재학생으로서의 노력의 소산입니다.

“체대생들은 멍청하다” 우리 대학 학우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체육 전공 학생이 들어온 말입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혹은 사람 간 만남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배움을 받는 강의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체대생은 멍청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멍청하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멍청하다고 말할 때는, 교과 성적이 좋지 않은 이에게 종종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교과 성적 및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이들은 모두 멍청한 사람일까요? 멍청함의 기준이 그뿐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소위 SKY라고 불리는 대학에 가지 못한

기자석 III

우리가 대학교에서 얻어야 하는 것



송현일 수습기자

봄과 새 학기가 주는 설렘을 안고 등교해본 학교의 모습. 분명 개강 직후 가장 시끄러워야 할 3월임에도 조용하다. 코로나 이전 학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왁자지껄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밤이 되고 지나가 본 성내동 술집 골목에는 정적만이 남아있다. 시끌벅적하던 강의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던 학우들, 설렘이 가득했던 미팅, 풋풋함이 묻어나던 CC들, 늦은 밤에도 취기오른 학생들로 붐비던 술집 골목...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음에도, 대학 생활의 낭만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여전히 ‘겨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현재는 강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수업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학교는 아직도 조용한 걸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학교는 3년에 걸친 ‘단절의 시간’을 보냈다. 수업은 물론 그 어떤 교내 행

이는 모두 멍청한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뛰어난 사업가도, 덕망 있는 지도자여도, 유명한 스타라도 말이죠.

체대생이 중·고등학교 시절 교과목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학생에게 공부란 ‘뇌’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에선 ‘몸’이 곧 뇌입니다. 몸을 단련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체대 입시생들이 체대에 가기 위해선 공부보다 운동해야 합니다. 입시제도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 선수는 몸을 단련하는 것이 곧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메달을 따낸 우리 대학은 명실상부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중심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선수가 아닌 학생들

은 몸을 단련하고 신체와 관련한 공부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과연 단순히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을 1등급을 맞을 정도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체육대학교의 가치를 만들어 낸, 그리고 만들어 낼 학생들을 멍청하다고 정의할 수 있을지요.

우리 학생들은 곧 체육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들에게 “체대생은 뺨대加里다.”라는 선입견은, 학생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넓은 세상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학생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면, 학생들이 체대생 선입견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시민 항소이유서 차용

기자석 II

군기는 사라지고, 예절은 지켜져야 한다



박소영 기자

학과 행사 뒷풀이 후 집에 가려는 데, 행사를 운영하던 과학생회 임원과 마주쳤다. 이때 가벼운 목례 한 번 없이 흘깃 쳐다만 보고 가는 일은 옳은 일인가? 또, 엠티 뒤풀이를 위해 며칠 전부터 조원들과 함께 잡아둔 일정을 바꾸고, 불참하는 일이 옳은가? 마지막으로, 술자리에서 너무 취한 나머지 타과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거나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기분이 나빴을 사람에게 다음 날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는 일은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모든 일은 이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 동안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건들은 저학년 후배가 했을 때는 잘못이고, 고학년 선배가 하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본인이 참여한 행사 운영진에게 인사하기, 약속 지키기, 고마움과 미안함 표현하기는 학교 안에서든, 학교 밖 사회에서든 혹은 친구들, 선후배이든 어디에서나 지켜져

야 하는 사람 대 사람의 예의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찾아진 대면 활동이라 그런지, 선배들이 체대의 ‘동군기’가 잘못임을 인지하고 후배에게 하는 주의나 훈계 등의 말과 행동을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지, 최근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예의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하다.

‘군기’와 ‘예절’의 차이가 무엇인가? ‘군기’는 군대의 기강을 뜻하는 말이다. 즉, 군대의 법도나 규율을 말하는데, 대학교는 군대가 아니기에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에 ‘동군기’라는 말로 비판 받은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도 다양한 사회 중 하나이기에 예절은 필수다. 최근 많은 선배는 ‘내가 곧대인가?’ ‘이런 주의나 훈계의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군기 잡는 것처럼 느껴려나?’ 하는 생각으로 후배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고민을 한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예절에 대한 주의임에도 말이다.

그럼에도 선배들은 후배의 잘못에 대해 얘기해 줘야 한다. 단,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말’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개구리도 울창이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선배도 지금의 후배들처럼 아직 낯설고, 방법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나’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과한 비난은 말아야 한다. 단지

앞으로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 줘야 한다. 우리도 누군가의 후배였으니 말이다.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후배들은 예절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예절교육은 주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행해지지 20살이 넘는 성인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성인의 예의 부족에 사람들은 비판을 하지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대학’에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배우는 예절은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 다양한 직업, 연령층의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술자리 예절, 단체생활 예절 등 성인이 된 후에 배울 수 있는 예의는 더욱 그렇다.

똑같은 성인인데 몇 학번 차이만 있다고 서로를 가르치고,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점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선배를 존중하고, 위해주는 이유는 ‘조직에서 나보다 더 오랫동안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예절을 가르쳐준다는 것은 조직에서의 적응을 돕는 일이다. 저학년 학우들이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후배 간의 예절에 관한 바른 대화야 아낌없이 나눠지길 바란다.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박호근 주 간|허진석 기 획|김세준 편집장|한지용

기 자|기민정·김수빈·권규태·박소영·박서진·송현일·원지호·강민지·강현석·박정윤·이선우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

전 화|02)410-6556